

주간 한우정보

제21호

2022.1.24.

국내 소식

- 문재인 정부의 소고기 수입구조 변화

해외 소식

- 미 백악관, 육가공업체의 과점 규제정책 발표
- 일본, 축산농가 원격진료 'U-메디컬 서포트' 개발
- 일본 흑모와규, 얼룩말 페인팅으로 방충효과 검증

전 국 한 우 협 회
한 우 정 책 연 구 소

문재인 정부의 소고기 수입구조 변화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년간(16~21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2.2kg 증가한 반면, 자급률은 38.9%에서 36.8%로 2.1%p 하락
-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6년 11.6kg에서 21년 13.8kg으로 2.2kg이 늘었으며, 비율로는 18.9%가 증가하여, 연평균 3.3%씩 성장
 - 같은 기간 한우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16년 3.9kg에서 21년 4.4kg으로 0.5kg 증가, 증가분 2.2kg의 2할 정도
 - 한편, 국산육중 수입육과 대체관계가 큰 젓소품종 및 교잡우로 이루어진 육우는 0.6kg에서 0.7kg으로 0.1kg이 증가하는데 그침
 - 결과적으로 수입소고기 1인당 소비량은 16년 7.0kg에서 21년 8.8kg으로 1.8kg이 늘었으며, 증가분 2.2kg에 대한 비중은 81%에 달함
 - 1인당 소고기소비량 : (16) 11.6kg → (21) 13.8kg, 2.2kg ↑
 - 한우고기 1인당 소비량 : (16) 3.9kg → (21) 4.4kg, 0.5kg ↑
 - 육우고기 1인당 소비량 : (16) 0.6kg → (21) 0.7kg, 0.1kg ↑
 - 수입소고기 1인당 소비량 : (16) 7.0kg → (21) 8.8kg, 1.8kg ↑

[소고기 자급률과 1인당 소비량]

(kg,%)

구 분		1인당 소비량		자급률	
			한우		한우비율
2016		11.6	3.9	38.9	33.8
2021		13.8	4.4	36.8	31.8
변동	16~21	2.2(19.0% ↑)	0.5(12.8% ↑)	△2.1%p	△2.0%p

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통계연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 한우 소비량과 비율, 21년도 수치는 한우정책연구소에서 추계

- 문재인 정부 5년간, 소고기 수입량은 36만 6천 톤에서 46만 9천 톤으로 28.1%(10만 3천 톤)가 늘었으며, 수입금액은 20억 9,100만 달러에서 35억 6천만 달러로, 물량 증가보다 훨씬 높은 70.3%(14억 6,900만 달러)나 증가
- 국가별로 보면 미국산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진데, 수입물량은 60.3%, 수입금액은 약 2.2배로 큰 폭으로 증가
- 미국산 수입물량은 16년 15만 6천 톤에서 25만 톤으로 60.3%(9만 4천 톤)가 늘었으며, 수입금액은 9억 6,700만 달러에서 20억 9,300만 달러로 116.4%(11억 2,600만 달러)가 증가
- 소고기 수입에서 국가별 비중도 미국산의 성장이 뚜렷한데, 수입물량 기준으로 16년 수입비중은 미국산 42.6%, 호주산 49.1%로 호주산이 우위를 점했으나, 21년에는 미국산 53.3%, 호주산 38.2%로 미국산이 과반 수이상을 차지
- 수입금액에서도 미국산은 16년 46.2%에서 21년에는 58.8%로 호주산 35.3%보다 23.5%p나 높은 비중을 나타내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
- 한편 21년 기준, 물량 기준으로 수입소고기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산 53.3%, 호주산 38.2%로 미국과 호주가 91.5%를 차지
-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각각 58.8%, 35.3%로 전체의 94.1%를 차지

[문재인 정부 소고기 수입량과 수입금액]

(천톤, 백만\$, %)

구 분		수입물량				수입금액			
			미국	호주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6		366 (100.0)	156 (42.6)	180 (49.1)	30 (8.3)	2,091 (100.0)	967 (46.2)	996 (47.6)	128 (6.1)
2021		469 (100.0)	250 (53.3)	179 (38.2)	40 (8.5)	3,560 (100.0)	2,093 (58.8)	1,258 (35.3)	209 (5.9)
변동	16~21	28.1	60.3	△0.5	33.3	70.3	116.4	26.3	6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 물량 대비 수입금액의 현저한 증가는 수입단가의 상승과 냉장육 비중의 증가가 주요 요인

- 문재인 정부 5년간 소고기 1kg당 수입단가는 16년 5.7달러에서 21년 7.6달러로 33.3%(1.9달러)가 상승
 - 같은 기간, 특히 미국산은 6.2달러에서 8.4달러로 상승률 35.8%인 2.2달러나 높아 졌으며, 호주산은 5.5 달러에서 7달러로 1.5달러가 상승
- 전체 수입소고기의 냉장육 비중은 16년 16.4%에서 21년 25.1%로 8.7%p가 높아짐
 - 특히, 미국산은 16년 15.7%에서 21년에는 30.9%로 냉장육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 한편 호주산도 미국산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냉장육 비중이 16년 19.7%에서 21년 22.2%로 늘어남

[문재인 정부의 소고기 수입단가와 냉장육 비중]

(\$/kg, %)

구 분		수입단가			냉장육 비중		
			미국	호주		미국	호주
2016		5.7	6.2	5.5	16.4	15.7	19.7
2021		7.6	8.4	7.0	25.1	30.9	22.2
변동	16~21	1.9 (33.3% ↑)	2.2 (35.8% ↑)	1.5 (27.3% ↑)	8.7%P	15.2%P	2.5%P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주 : 수입단가는 연간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수치, 냉장육 비중은 연간 수입물량에서 냉장육 비중(잡육은 제외)

□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소고기는, 미국산 중심으로 냉장육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수입단가도 높아짐으로써, 품질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소고기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한우고기와 품질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경쟁력 확보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동향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

작성 : 황명철 부소장

미 백악관, 육가공업체의 과점 규제정책 발표

- 미국 백악관은 22년 1월 3일, 대형 식육 기업의 과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되는 ‘보다 공평하고, 보다 경쟁력 있으며, 보다 회복력 있는 식육·식조 공급 망을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
 - 이는 대형 식육업체에 의한 시장 과점은 생산자의 수익성 억제와 소비자의 식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일부 공장 폐쇄가 식량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액션 플랜의 내용은, ①독립계 시설의 처리·가공 능력 강화, ②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③현행 경쟁법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집행 및 정부 일체로 경쟁 촉진, ④가축시장의 투명성 확보·향상 등
- ‘독립계 시설의 처리·가공 능력 강화’에서는 미국 농무성(USDA)이 대기업 육류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육류 처리, 가공 시설, 즉 독립계 시설의 능력 강화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의 예산을 조치
 - 우선, 경쟁력·회복력 강화를 위한 독립계 시설의 대처 지원으로 처리, 가공능력의 다양화 등 단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응을 지원
 - 22년 봄에 제1탄(단계1)으로서 약 1억 5,000만 달러(1,790억 원), 동년 여름에 제2탄(단계2)으로서 약 2억 2,500만 달러(2,684억 원)를 조치 예정
 - 다음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융자제도 강화하는데, 저금리의 장기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최대 2억 7,500만 달러(319억엔)를 조치, 미 농무부는 22년 여름까지 제휴 금융기관의 모집을 개시할 예정
 - 세 번째는, 식품 가공·유통 인프라 정비에 관한 융자 보증으로, 독립계 시설에 의한 냉장시설부터 전용기기까지 폭넓은 인프라 정비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억 달러(1,193억 원)를 조치해 융자 보증을 실시
 - 이를 통해 10억 달러, 한화 1조 1,931억 원, 이상의 융자가 가능할 전망

- 또한, ‘노동자·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노동자의 적절한 임금 및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 전문기술 공개를 통한 기술혁신, 시간외 검사 비용의 경감, 식육·식조 검사 준비 조성 프로그램을 통한 검사 체제 유지·강화 등을 추진

- 노동자의 훈련, 안전한 노동 환경, 적정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계 시설의 체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1,193억 원)를 조치
- 전문 기술을 공개해, 독립계 시설이나 관계 사업자, 생산자, 생산자·노동자 단체 등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5,000만 달러(597억 원)를 조치
- 소규모 시설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외 및 휴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30%, 75% 경감, 전체적으로 1억 달러(1,193억 원)를 절감
- 식육, 식조검사 준비 조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방검사허가증 취득, 공동주(州)간 운송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5,520만 달러(659억 원)를 조치해 이미 3,200만 달러(382억 원)를 교부 완료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책으로, ‘패커·스톡야드법’에 의거한 새로운 규제 제정, ‘Product of USA’ 라벨의 표시 규칙 재검토 등을 추진

- 식육 가공·처리 업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2년 내에, ‘패커·스톡야드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3개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
- ‘패커·스톡야드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은 불공정한 가축거래 및 가격형성 등을 금지하고, 식육가공 대기업의 부정행위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 1921년 제정됨
- 미 농무부 곡물검사식육유통국(GIPSA :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을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음
-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명확해지도록 ‘Product of USA’ 라벨의 표시규칙을 전면 재검토

□ 현행 경쟁법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집행과 아울러 정부 관련부처가 일체가 되어 경쟁을 촉진

- 미 농무부(USDA) 및 미 사법부(DOJ)가 제휴해,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잠재적인 불공정,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두 기관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공동 대응책 마련에 착수

□ ‘가축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육우거래 관련 새로운 시장보고서 발행과 연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

- 미 농무부(USDA)는 21년 8월, 소의 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추진하기 위해 쇠고기 도축 및 육가공업자가 생산자 측에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새로운 시장보고서를 발행

- 또, 기존 제도 아래, 더 한 층의 투명성 향상을 향한 대책도 검토

- 가축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개선, 생산자와 식육 및 식조처리 가공업자 간의 적절한 가격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

□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육가공업계는 정책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생산자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 북미식육협회(NAMI :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는 1월 3일 백악관이 공표한 액션 플랜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북미식육협회(NAMI)의 포츠(Julie Anna Potts) 회장은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대형 식육기업에 책임 전가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10억 달러를 조치하겠다는, 같은 발표를 최근 반년 동안 3차례나 했다.

- 기자회견을 하든, 세금을 들여 새로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식육업계의 노동력 부족이나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 투입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의 상승, 노동력 부족, 수송의 문제 등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는 식육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반발

- 또 북미식육협회(NAMI)는 1994년 이후 쇠고기 시장의 모든 부문 단계에서의 이익률 추이를 소개하고 도축 가공업자가 다른 부문과 단계를 희생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게다가 클린턴 정권 시대의 재무장관, 오바마 정권 시대의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을 지낸 현 하버드 대학 명예 학장인 로런스·서머스(Lawrence Summers)씨의 “가격 상승 등 식육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식육의 수요 증가, 생산능력의 제약, 노동력 부족에 의해서 모두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권내의 비판적인 SNS 발신을 소개

□ 한편 ‘미국육우생산자협회(USCA : United States Cattlemen's Association)’는 이번 대책이 미국 식육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

- 성명서에서, 이번 백악관의 발표는 동 협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독립계 시설’에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
- 이번 대책이 생체 우시장에 투명성과 진정한 가격의 발현을 가능케 하고, ‘Product of the USA’라는 라벨제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서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진정으로 더욱 강인한 미국의 식육산업 구축에 필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힘

□ 시사점 : 한우 등 축산업에서 자본력과 시장교섭력이 높은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있는 도축, 육가공, 도·소매유통 등 ‘전방산업’의 경쟁구조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공정한 이익확보가 가능

- 특히,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산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국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22.1.18.)

일본, 축산농가 원격진료 ‘U-메디컬 서포트’ 개발

- ‘스카라 커뮤니케이션’은, 미츠이 스미토모 해상 화재 보험, 디자인과의 공동 창조 프로젝트로서 축산업계 최초가 되는, 수의사와 농가의 가축 진료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로 지원하는 진료 서포트 서비스 ‘U-메디컬 서포트’ 개발에 착수
 - ‘U-메디컬 서포트’는 IoT와 AI를 활용한 소의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U-motion’과 제휴해, 진료 후의 소 개체의 진료 경과를, 수중의 스마트폰이나 PC로 확인할 수 있게 함
 - 또, 진료를 서포트하는 메모 기능이나 전자 진료기록카드 작성 기능, 증상 및 약제 등의 각종 마스터 기능
 - 농가나 소 개체 정보의 검색기능 외에, 농가를 위한 FAQ나 챗봇 등의 실장을 예정하고 있음
- ‘U-motion’은 일본 ‘데자미스’사가 개발한 소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 소의 목에 부착된 센서가 소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반추, 움직임, 옆으로 눕기, 기립 등, 소의 주요 행동을 24시간 365일 기록할 수 있음
 - 집적된 행동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소의 이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질병, 발정, 기립 곤란 등의 경우 정보에서 알릴 수 있다.
- 3사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진료를 서포트함으로써 진료시간의 단축이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함
 - 전화나 FAX, 우편, SNS 등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려운 수의사와 농가 간 정보 교환 구조의 획기적 개선에 기여
 - 축산농가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사실에 기초하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 축산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자료 :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22.1.18.)

일본 흑모와규, 얼룩말 페인팅으로 방충효과 검증

- 일본 요네자와우(米沢牛) 산지인 야마가타현(山形県)은 ‘등에’,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와규 몸을 얼룩말과 같이 ‘얼룩말 문양’으로 페인팅 하는 실험을 추진
 - 실험은 야마가타현 오구니초(小国町)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실용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
 -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줄무늬에는 흡혈곤충을 접근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얼룩말 무늬도 이 때문이라는 연구 가설이 있음
 - 요네자와우(米沢牛)는 일본에서 ‘마쓰자카우(松阪牛)’, ‘코베우(神戸牛)’와 더불어 3대 브랜드 중 하나로 ‘요네자와우 브랜드추진협의회’에서 품질을 인증한 흑모와규 미경산 암소

[얼룩말처럼 ‘얼룩말 문양’으로 페인팅 된 와규 (10월, 야마가타현 오구니초)]



- 소는 벌레를 싫어하면 운동량이나 식욕이 떨어져 번식이 잘 안 되거나 효율적인 비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
 - 8~10월 야외 울타리에 고정된 흑모와규 번식우의 제자리 걸음과 목, 꼬리를 흔들며 벌레를 싫어하는 몸짓 횟수를 조사함
 - 우레탄 도료로 얼룩말 무늬로 ‘변신’시킨 소는, 통상의 소와 비교해서 약 4~8할 정도, 싫어하는 횟수가 적었음
 - 실험에 협력한 ‘엔도 축산(遠藤畜産)’ 이사 엔도 히로토시씨는 “흡혈 곤충이 거의 들러붙지 않았다”면서 효과를 실감
- 야마가타현은, 노동력 절감 및 사료비 절약을 위해 ‘간이 방목’을 추진해 왔지만, 움직임이 느린 소는 흡혈 곤충의 먹이가 되기 쉬워, 생각처럼 확산에 되지 못했음
 - 그래서 참고로 한 것이 2019년에 아이치현(愛知県) 농업종합시험장(나가쿠테시)이 발표한 논문
 - 얼룩말 가설을 응용, 얼룩말 문양으로 페인팅한 소에는 부착하는 벌레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
 - 약 1주일만에 페인팅한 문양이 사라진다는 과제는 남지만, 엔도씨는 “22년에는 실제로 방목해 보고 싶다”라고 분발

자료 : 일본경제신문 (21.11.20.)